

사노피, 소아용 DTaP 혼합백신 포트폴리오, 'AcXim(악심) 패밀리'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 * 4 가~6 가 DTaP 혼합백신, '테트락심주', '펜탁심주', '헥사심프리필드시린지주' 정보 총망라한 'AcXim(악심) 패밀리' 홈페이지
- * DTaP 혼합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 및 혼합백신별 정보를 한 눈에... 영유아맘 등 소비자 중심 맞춤형 정보 제공

대한민국 서울, 2022년 5월 25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이하 사노피)은 자사의 DTaP 혼합백신 포트폴리오인 'AcXim(악심) 패밀리'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

AcXim(악심) 패밀리 홈페이지는 지난 10년 간 국내 어린이의 든든한 기초예방접종 파트너로 자리 잡은 사노피의 DTaP 혼합백신 브랜드인 4 가 DTaP 혼합백신 '테트락심주(이하 테트락심)', 5 가 DTaP 혼합백신 '펜탁심주(이하 펜탁심)', 6 가 DTaP 혼합백신 '헥사심프리필드시린지주(이하 헥사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각 백신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작되었다.

이번 홈페이지는 'AcXim(악심) 패밀리'의 '무한한 혁신 가능성'을 테마로 하여 예방 질환정보를 비롯해 예방접종 스케줄, 국내외 DTaP 혼합백신 사용 경험 등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에 4,5,6 가 DTaP 혼합백신을 모두 공급하는 유일한 백신전문기업인 사노피의 DTaP 혼합백신 개발 전문성과 영아 DTaP 예방접종 파트너로서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는 등 국내 소비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cXim(악심) 패밀리는 지난 2009년 4 가 DTaP 혼합백신 테트락심의 국내 허가를 시작으로, 2016년 5 가 DTaP 혼합백신 펜탁심, 2020년 6 가 DTaP 혼합백신 헥사심을 차례로 도입하며 구축해 온 사노피의 대표 포트폴리오다. 테트락심이 2012년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도입된 후, 2, 4, 6 개월 영아 기초예방접종으로 사용되었으며, 2017년 펜탁심이 출시와 동시에 필수예방접종으로 도입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기초예방접종에 펜탁심이 사용되고 있다(2021년 4Q 기준). 2020년 질병청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의 94.3%가 5 가 DTaP 혼합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트락심은 기초접종뿐만 아니라, 만 4세~6세 추가 접종에도 사용 가능하며, 국내 4 가 DTaP 혼합백신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백신이다(2021년 4Q 기준). 6 가 DTaP 혼합백신 헥사심은 2, 4, 6 개월 영아 대상 유료로 사용 중이다.

파스칼 로빈(Pascal Robin) 대표 사노피 백신사업부 한국법인

"새롭게 리뉴얼된 AcXim(악심) 홈페이지를 통해 부모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아기 예방접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아기가 접종한 백신이 국내외에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백신이라는 점 등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백신 정보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사노피는 지난 10년 간 혁신적인 소아용 DTaP 혼합백신을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입해 현재 DTaP 혼합백신 포트폴리오인 'AcXim(악심) 패밀리'를 구축, 올해 1분기, 국내 영아 10명 중 약

9 명이 'AcXim(약심) 패밀리'로 감염질환을 예방하는 등 한국의 필수예방접종사업 파트너로서 도움이 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공공보건 파트너로서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가필수예방접종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방접종에서 혼합백신의 사용은 복잡한 기초예방접종 스케줄을 간소화하여 적기 접종률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4가 DTaP 혼합백신은 4 가지 질환(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소아마비, IPV))을 하나의 백신으로 예방하며, 단독 백신으로 접종 시 최대 6 회에 이르는 접종 횟수를 단 3 회로 줄인다. 5 가 DTaP 혼합백신은 5 가지 질환(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소아마비, IPV) 및 b 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에 의해 발생하는 침습성 감염증)을 예방하며, 단독 백신으로 접종 시 최대 9 회에 이르는 접종 횟수를 단 3 회로 줄인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권고되는 추세인 6 가 DTaP 혼합백신은 5 가 DTaP 혼합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 질환에 'B 형간염' 항원을 추가한 백신으로, 개별백신 접종 대비 접종횟수를 최대 8 회 감소시킨다. 단, 6 가 DTaP 혼합백신은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병의원에서 유료 접종으로 사용 중이다.

한편, 사노피는 100 년 이상의 오랜 백신 개발 역사를 가진 글로벌 백신 전문 기업으로서 매년 10 억 도즈 이상, 5 억 명에 달하는 인구에게 예방접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17 여 가지의 감염성 질환(콜레라,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백일해, 파상풍, A 형 간염, B 형 간염, 수막구균, 인플루엔자 등)을 예방하는 폭넓은 백신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또한 60 년 이상 소아용 혼합백신 개발 역사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혼합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전문성을 발전시키며, 영아의 기초 면역 형성 및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있다. 사노피는 지난 40 여 년 간 국내 제약사 및 주요단체, 보건당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감염병 예방에 기여하며, 국내 주요 백신 공급원으로 한국의 공공보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아기의 건강을 생각하는 엄마의 '결심(Xim)'

국내 사용량 1위 4가, 5가, 6가 DTaP 혼합백신
AcXim(약심) 패밀리^{1,6}

테트라심, 펜탁심, 헥사심

*4가, 5가 DTaP 혼합백신 2017.1Q~2021.4Q 국내 판매량 기준, IQVIA® 2020.04~2022.04 국내 출시 6가 DTaP 혼합백신 기준**

(참고 이미지) 'AcXim(약심) 패밀리'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사노피(Sanofi)에 대하여

사노피는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 기적을 추구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100 여 개국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의료 현장(practice of medicine)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노피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심에 두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 옵션과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공급합니다.
